

운명의 8연전에 험난한 대진운까지... 위기에 봉착한 KIA

8연전 첫 3경기서 모두 패배... 6위 추락

2위 KT와 주말 3연전... 8연전 최대 고비

운명의 8연전을 치르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위기에 봉착했다. 연패가 길어지고 있고, 향후 고된 일정에 대진까지 험난하다.

KIA는 지난 16일 광주 두산 베어스전이 우천 취소되며 8연전 일정이 확정됐다. 17일 두산과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광주 KT 위즈전까지 소화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KIA는 지난 17일 두산에 3-8로 졌고, 18일 경기에서도 4-8로 패했다. 경쟁자 두산과의 2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4위 자리를 빼앗겼다. 실상가상으로 19일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도 점선 끝에 3-4 석패를 당했다.

KIA의 최근 흐름도 나쁘다. 어느덧 연패 숫자가 '6'까지 늘어났다. 6경기에서 총 41점을

헌납한 마운드의 난조가 뼈아팠다. 더구나 선발 투수 이의리, 마리오 산체스와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부상 공백도 뼈저리게 느꼈다.

8연전 중 첫 3경기를 패한 KIA는 순위가 6위까지 떨어졌다. 4위 두산과의 승차가 2경기로 벌어졌고, 5위 SSG 랜더스와의 1경기 차다. KIA는 20일 홈에서 최하위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6연패 탈출에 도전한다.

실상가상으로 앞으로의 일정도 가시밭길이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산, 선두 LG와 만났던 KIA는 2위 KT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2위 자리 사수를 위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KT는 KIA 입장에서 매우 까다로운 상대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7승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최근 뚜렷한 하락세가 걸림돌이다. KT는



지난 10경기에서 6승 1무 3패를 기록했다.

KIA, SSG와 포스트시즌 진출 티켓을 놓고 다투는 두산 또한 8연전을 소화 중이다. 두산 역시 끈질기운 대진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주

3위 NC 다이노스와 무려 4경기를 치른다. 4경기 중 첫 판이었던 지난 19일 잠실 NC전에서 1-2 패배를 떠안았다.

반면 SSG는 이번 주 대진이 수월하다. 지난

19일 8위 한화 이글스를 5-3으로 제압했고, 20일 9위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한다. 주말에는 7위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3연전에 돌입한다.

뉴스



기념촬영하는 항저우AG 대한민국 선수단

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최윤 선수단장을 비롯한 선수들이 출국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항저우AG 한국 선수단 본진 출국... 최윤 "종합 3위 당연히 해낼 것"

23일 개회식 시작으로 약 보름간 대회 일정 소화

2022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 본진이 20일 결전지인 중국 항저우로 출국했다.

선수단 본단은 이날 낮 12시2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359편으로 떠난다. 이들은 약 2시간20분간 비행을 거쳐 중국 항

저우 선수촌에 도착할 예정이다.

출국 인원은 최윤 선수단장(대한력비협회장), 장재근 총감독(국가대표선수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본부 임원과 테니스, 사격, 롤러(스케이트보드), e스포츠(FC온라인), 남자 하키 종목 선수단 등 100여명이다.

오늘 다질 예정이다.

이기훈 대한체육회장은 공항 인터뷰에서 더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더위는 자연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잘 극복해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냉방시설이라든지 실내는 추울 정도로 잘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 시합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일기 상황도 괜찮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중국 현지 대회 운영과 관련해 잡음이 있다는 지적에는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

다. 그는 "보고는 다 받고 있다. 다만 어떤 대외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조만간에 정식으로 오픈닝 세리머니를 하고 나면 모든 준비들이 잘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 선수단장은 종합 3위 달성을 낙관했다. 그는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충분한 실력이 있다고 제가 사전에 많이 확인을 했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스포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뉴스

이강인·김우진·안세영, '항저우AG 주목할 선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축구의 이강인(22·파리 생제르맹), 양궁의 김우진(31·청주시청), 배드민턴의 안세영(21·삼성생명)을 주목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공식 정보 사이트 '마이인포'는 20일 이번 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별 선수들을 소개하며 한국 선수로는 이강인,

김우진, 안세영을 포함했다.

프랑스 명문 클럽 파리 생제르맹(PSG) 소속인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하는 남자 축구 대표팀의 핵심 자원이다.

지난달 부상을 입었다가 이날 새벽 2023-20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통해 복귀했다. 중국 현지시간으로

21일 오후 항저우에 입성할 예정이다.

마이인포는 "이강인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을 결승으로 이끌었고,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폴 포그바(프랑스) 등이 받았던 골든볼을 수상한 선수"라고 소개했다.

올해 여름 프랑스 챔피언 PSG에 합류했다는 내용도 빠뜨리지 않았다.

김우진은 한국 남자 양궁의 간판선수다. 2010 광저우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어 이번엔 개인 통산 네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린다.

2016 리우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 단체전에서 연이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3차례나 우승했다.

마이인포는 "김우진은 남자 양궁 리커브의 우승 후보"라고 그의 우승 경력을 자세히 소개하며 "세계 랭킹 2위이자 아시아 넘버원 선수"라고 전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은 지난 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예열을 마쳤다.

남녀를 통틀어 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 단식 종목을 제패한 건 안세영이 처음이다.

조직위는 "21세 안세영은 여자 단식 세계 1위 선수"라며 "올해 단식 타이틀을 7개나 석권했다. 여기에는 세계선수권 2회 우승자 야마구치 아카네(일본), 도쿄올림픽 금메달 천원페이(중국)를 꺾은 결과가 포함된 것"이라고 알렸다.

'복통 호소' 김하성, 사흘 연속 선발 라인업 제외

MLB닷컴 '상태 나아져... 오늘 라인업 복귀 가능성'

복통을 호소하고 있는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사흘 연속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샌디에이고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펠코파크에서 벌어진 2023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김하성을 제외했다.

졸곧 리드오프로 뛰었던 김하성이 빠지면서 전타 보가츠가 1번 타자를 맡았다. 2루수로는 매슈 배튼이 나선다.

김하성은 지난 18일 오렌저드 애슬레틱스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지만, 경기 시작 직전 복부에 통증을 느껴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당시 밥 멜빈 샌디에이고 감독은 "맹장염 또는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은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복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하성은 19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

해 "불운하게도 지금 느낌은 매우 좋지 않다"고 전했다.

공수에서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김하성은 타율 0.265(501타수 133안타) 17홈런 58타점 81득점 36도루의 호성적을 거두며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샌디에이고는 이날 경기를 포함한 11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홀런 3개와 도루 4개를 더하면 아시아 선수 최초로 20홈런-40도루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김하성으로서는 공백이 길어지는 것이 달갑지 않다.

다행히 김하성은 조만간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LB닷컴에 따르면 밥 멜빈 샌디에이고 감독은 "김하성의 상태가 한층 나아졌다. 21일 콜로라도와의 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는 라인업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광주체중 조정팀, 전국대회 금 2개·은 1개 수확



광주체육중학교 조정팀 노효림(사진 왼쪽), 박준호, 박성민.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체육중학교 조정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서선욱기자

광주시교육청은 체육중 조정팀이 강원도 화천군 화천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17회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고 대회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 여중부 싱슬스킬 1000m에 출전한 광주체중 노효림은 4분 09초 39의 기록으로 2위 장성여중(4분 18초 78)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남중부 더블스킬에서 박준호·박성민 조가 3분 28초 15를 기록해 강원 소양중(3분 44초 93)을 16여초 차이로 압도하며 1위를 차지했다.

더블스킬 1000m에 출전한 이수아·권지영 조는 3분 50초 97의 성적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